

뉴질랜드의 한국시장 공략

지난해 9월3일 서울 조선폰에서 「'97한국-뉴질랜드 녹용 효능 연구결과 세미나」가 있었다.

본래 이 세미나는 한국한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열기로 되어 있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조선폰으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에서는 세미나 일정을 보다 상세히 알기 위해 뉴질랜드 대사관 (730-7794)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권혁중 상무관)에게 문의했으나 가르쳐 주기를 거부하며 대신 자료는 보내줄 수 있다고 했다.

협회에서는 정보 안테나를 가동, 장소가 조선폰으로 바뀌었으며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근무시간이 끝나고 회장, 사무국장, 홍보부장 3명이서 조선폰으로 향했다.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세미나장으로 들어서니 슬라이드 상영 관계로 실내가 캄캄했다. 맨앞자리에 앉아 「뉴질랜드 녹용의 효능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를 들었다.

발표자는 뉴질랜드 인버메이 농업연구소 연구위원인 제임스 밀러 서티 (James Miller Suttie) 박사로 녹용연구에 관한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통역은 뉴질랜드 대사관 권혁중 상무관이 했는데 기존의 통역방식 틀을 깨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일사천리로 설명해 나갔다. 주제를 완전히 숙지하여 자기화한 것이 분명했으며 꼭 녹용을 말할때는 「뉴질랜드」라는 접속어를 붙이고 있었다.

예를들어 「뉴질랜드 녹용」은 어디에 좋고 「뉴질랜드 녹용」은 실험결과 어떤 유효성이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뉴질랜드 녹용」 「뉴질랜드 녹용」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뉴질랜드 녹용」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전략일수도 있겠지만 협회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역겹다 못해 허탈하기 까지 했다.

첫 주제발표가 끝나고 실내 조명이 흰하게 켜지자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뒤를 돌아보니 참가자는 1백여명 미만으로 추산되었고 분위기로 보아 한의대학 재학생과 한의원을 개업한지 얼마안된 젊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파악되었다. 젊은 한의학도부터 뉴질랜드 녹용을 세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되었다.

권혁중 상무관이 협회 일행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으며 주제발표를 위해 참가한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수도 인사를 건네왔다. 어찌보면 「초대되지 않은 손님」일수 밖에 없는 협회 일행은 머쓱하기도 했지만 계속 주제발표를 경청했다.

두번째 주제는 「녹용의 골다공증 치료 효과」로 안덕균 교수가 발표했다. 발표시간이 20분으로 책정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약 5분만에 끝내고 내려왔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녹용에 대한 임상적인 효능」으로 경희대 한의대 류기원 교수가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류교수는 「마치 뉴질랜드 녹용을 홍보하기 위해 나온 것 같아 ...」라고 전제한 후 발표를 시작했다. 모두가 국내 생산 자단체인 우리 일행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식사시간에 앞서 권혁중 상무관이 한국양륙협회장이 이자리에 참석하셨다고 정중히 소개한 후 한의업계 관련인사들을 소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참석한 사실을 알았다. 뉴질랜드로서는 자국에서 거의 소비되지 않는 녹용을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사용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고객이겠는가.

원탁 테이블에 우리 일행과 뉴질랜드 양륙위원회 리처드 리디포드 회장 일행과 동석하고 서로의 공금증을 물었다. 이것저것을 물은 후 이덕신 회장은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국내에 사슴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생녹용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녹용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단체행동을 불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시켰다.

리처드 리디포드 회장은 알아들었는지 『3일후 한국양륙협회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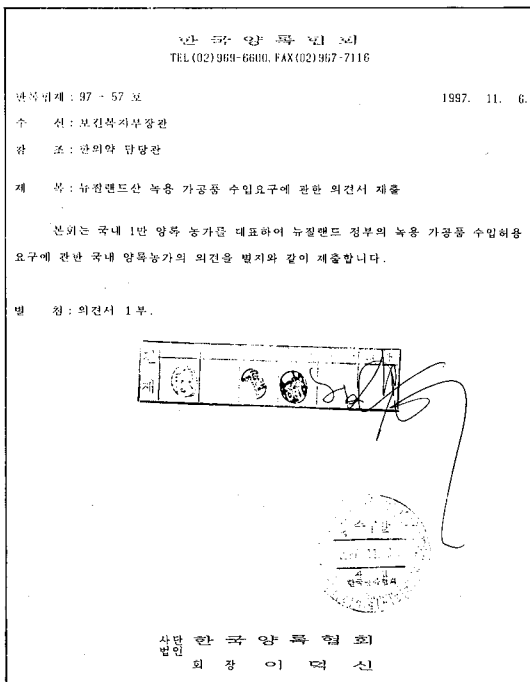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를 방문하여 뉴질랜드 절편 녹용 수입을 허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다녔다. (한국양륙. 97년 11·12월호 78쪽 참조)

협회에서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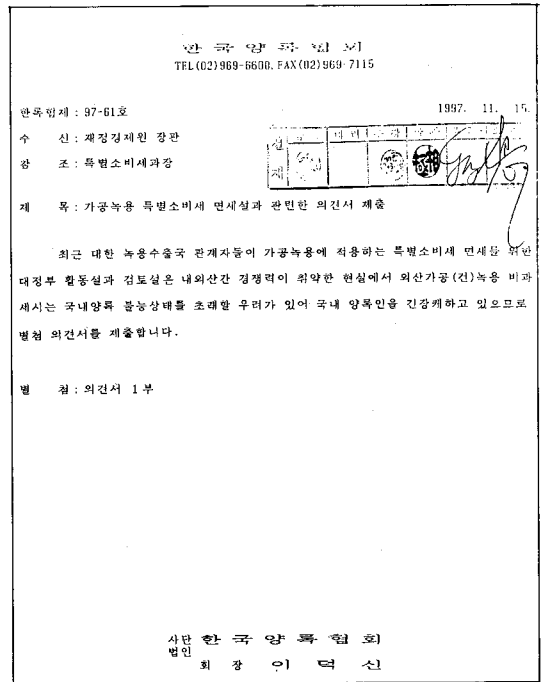
더 나아가 이들은 재정경제원에 들러 수입 녹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아예 없애 줄것을 요구하는등 공세적인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재정경제원 관련 공무원이 협회에 전화를 걸어 수입 녹용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면세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협회에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한다고 해서 그 차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녹용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재정경제원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참조)

한편 지난해 10월 2일 축협중앙회에서 있던 「양륙현안 타개대책 세미나」에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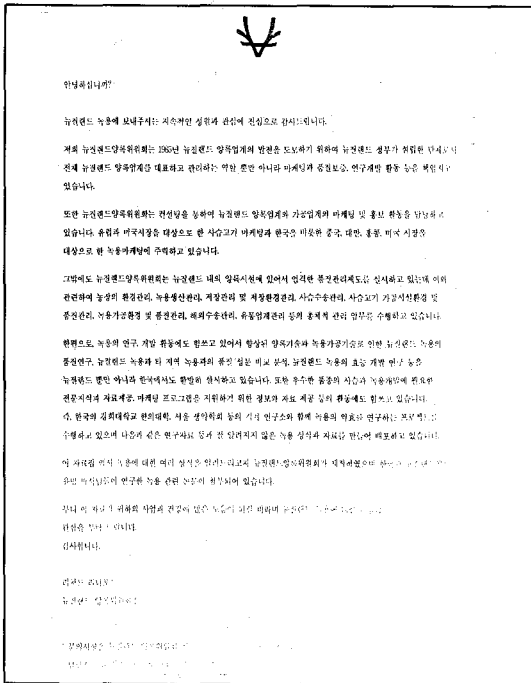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



△ 재정경제원에 보낸 공문

대사관 권혁중 상무관이 참가하여 세미나 자료를 가져 가기도 했다. 국내 양육에 관한한 일거수 일투족을 유의깊게 지켜보며 뉴질랜드에 국내 양육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표정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2월말)에는 뉴질랜드 녹용의 국내 홍보대행사인 메리트 커뮤니케이션즈 (전화 771-4020)를 통해 전국 한의원에 뉴질랜드 녹용이 「이렇게 좋다」는 식의 고급 유인물을 제작해 무료로 대량 배포한 사실도 목격했다. (인사장 참조)



△ 인사장

국내 전체 녹용 수입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최근들어 사슴고기의 수출이 용이치 않자 녹용 수출의 활로로 이의 만회를 위해 우리나라에 더욱 공세적인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녹용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절편 녹용 수입허용 공세」 「특별소비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행위는 어찌보면 내정간섭과 같은 것으로 우리 양육인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생녹용의 수출을 중

단하지 않고 있는 뉴질랜드의 행동을 협회에 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중이다.

양육에 관한한 대한민국의 최대 수혜국인 뉴질랜드가 국내 양육업 존립 자체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일관할 경우 협회에서는 선전포고후 국내 양육업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국내 양육인을 총 결집하여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물러가 강력한 항의 집회를 시도할 것이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점을 분명히 깨닫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내 유력 언론사 기자들과 한의사, 관련 인사들을 뉴질랜드로 초청하여 칙사대접하며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도 간파하고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기 바란다. 뉴질랜드 녹용의 홍보에 가담하는 이들의 행위가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즉시 명단을 공개하여 이들을 반양육 반애국인으로 매도하여 국내 양육인들로 하여금 끝없이 항의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양육인은 뉴질랜드의 공세적 활동을 유의깊게 지켜보며 협회의 대응방안에 적극 호응해 줄것을 당부드린다. <文>

● 단신

고급한약재 수입에 달려가 샌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와 장기 불황속에서도 녹용 등 고급한약재 수입은 96년 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고가 한약재인 녹용은 11월까지 뉴질랜드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1백17t (2천2백80만달러 상당)이 수입돼 96년에 수입된 83t (2천2백50만달러 상당)보다 무려 34t이 많았으며 12월 예상수입량 10t을 합하면 44t이 늘어날 전망이다.

녹용은 지난 93년 1백17t, 94년 1백30t, 95년 1백49t으로 증가하다 96년에 83t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수입량이 다시 늘어났다.

또 우황도 지난해 11월까지 수입량이 6백80kg (1천4백30만달러)으로 96년 수입량 6백33kg (1천3백80만달러)을 초과했으며 광물질 한약재인 주사 수입량도 5천9백22kg으로 96년 3천1백59kg보다 1천7백63kg이나 많았다.